

정보 사회에 대한 한국 교회의 대응

이승구 교수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서론: 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관심 집중 속의 교회

근자에 유행하는 단어로 소위 6T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흔히 언급되는 첨단 산업 기술 6가지가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IT), 생명 공학 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 공학 기술(ET), 우주 항공기술(ST), 문화 콘텐츠 기술(CT) 등이 이에 해당한다.

- BT: Biology Technology 생명 공학 기술
- ET: Environment Technology 환경 공학 기술
-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분야
- NT: Nano Technology 초정밀 원자 세계의 나노기술
- ST: Space Technology 우주항공 기술
- CT: Culture Technology 문화 관광 콘텐츠 기술

한국 정부도 이 6T가 국가 발전을 주도할 첨단 산업의 바탕이 된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003년 12월 21일 발표한 정부 계획만 하더라도 6T분야에 2004년부터 5년 동안 무려 13조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 중에 IT 분야에 대한 관심은 대단하다. 일반적으로 정보 기술(IT)이라고 불리는 이 말의 더 정확한 말은 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이다. 그리고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말은 이 정보 통신 기술의 점증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나오게 된 용어이다.¹ 정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이기 때문이다.² 그러나 권용혁 교수가 잘 지적하고 있는 대로, “정보 기술 자체의 역동성에 의해서 정보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기술을 발전, 확산시

¹ “Information Society” is the term that is used to capture the increasing contemporary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http://www.isc.ie/about/society_mean.html (information society commission의 홈페이지).

² 이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안문석, 『정보체계론』 (서울: 학현사, 1995); 이윤식, 『행정정보체계론』 (서울: 법영사, 1995); 하미승, 『정보체계론』 (서울: 법문사, 1996), 그리고 이를 인용하는 강휘원, “정보화 사회의 확산과 교육의 정보공간 활용: 수업 방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2집 (1998): 201-20을 보라. 인용은 205에서 온 것이다.

킬 것인가에 따라 정보 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³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의 정보화와 정보의 사회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정보 사회는 정보의 사회화가 현실적으로 정착될 때 완성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⁴ 그래서 때로는 더 정확한 용어의 구분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의 박정순 교수는 “정보화 사회(informatisation society)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로 볼 수 있고, 정보 사회라는 개념은 산업 사회와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은 기존의 산업 사회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보 사회라는 말을 개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정보 사회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다.

G. Wersig 같은 이는 정보 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보 사회'란 분화되고 다원화되며 복잡성이 증대하는 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상황이 배태시킨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이며,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로서, 그 사회 안에서는 수많은 영역에서 과부화된 현존하는 복잡성이 적절한 도움 수단을 통해서 감소되는 그러한 사회이다.”⁶ 이를 위해서 정보 사회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Wersig는 말한다: “1.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행위와 삶을 유도하며, 2. 지식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미디어 형태들을 개발하고, 3. 행위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인지적인 방향 설정 형태들을 개발하는 것”.⁷

이 정보 사회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관심을 보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도 지난 2월 6일에 ‘e-재팬 2’ 전략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오는 2006년까지 정보 보안, 행정, 국민 생활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IT 전자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IT 전략 본부(본부장 고이즈미 수상)는 (1) 병원 처방전의 전자 문서화, (2) 국가 행정 업무의 전자화, (3) IC칩을 내장한 여권 도입, (4) 각종 문서의 전자 보존이 가능한 ‘e-문서법’ 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향후 3년간 국가 I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일본 IT 전략 본부는 우선 2004년 4월까지 내각 내에 정보 보안 보좌관(가칭)을 두고 정부

³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철학』 56집 (1998년 가을호), 맺는 말(available at <http://home.ulsan.ac.kr/~philos/c75-kwon03.html>, accessed on 1st June, 2004).

⁴ Ibid.

⁵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Routledge, 1995), 5를 인용하면서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 한국철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 논문(1997. 5. 24), available at my.dreamwiz.com/reality/data/document/info_ethics.hwp. 비슷한 관찰로 “일반적으로 산업 사회의 연장선에서 파악하는 학자들은 정보화 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산업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를 설정하는 학자들은 정보 사회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는 지적으로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철학』 56집 (1998년 가을호), 각주 10을 보라.

⁶ Gernot Wersig, *Die Komplexitat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Konstanz, 1996), 13f.,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에서 재인용.

⁷ Ibid, 29.

의 통일적인 정책과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고 한다.⁸

이와 같이 각국에서 IT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IT학의 개설을 제안하는 교수도 있었다.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인 이상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대학에 'IT학'을 개설할 것을 권한다. 전세계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시작하지 못할 것도 없다. 새로 시작되는 IT학에서는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 전달과 공유, 감성공유, IT 이용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IT 사회 정보시스템 건설과 그것을 이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 등을 해 주어야 한다.⁹

이렇게 깊은 연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IT 연구를 통해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예측까지 해 보려 하고 있다.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KISDI)의 미래 한국 연구실의 강홍렬 실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영국은 94년부터 통상산업부 산하 과학 기술국(OST) 주관으로 'Foresight Programme'을 만들어 10~20년을 내다보고 향후 가능한 발전의 경향들을 시나리오 기법으로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도 92년부터 NITRD(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Development)를 조직,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미국은 정보 기술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연구하는데 지난해 만 무려 1조 1천억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한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KISDI는 2003년 8월부터 3단계로 구성된 작업을 진행중인데, 그 첫 결실이 '21세기 한국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다. 1단계는 IT로 인한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파악한 뒤, 2단계에서는 행정, 복지, 교육, 과학, 우주, 환경 등으로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사례 연구를 심화시키고, 3단계에서는 여러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랜드 이슈에 대한 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IT가 미래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¹⁰

이런 IT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와 전세계의 정보 사회화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일단 정보 사회의 특성을 살펴보고(I),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후(II),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장 바람직한 반응 방식을 제시하고(III), 한국 교회가 정보 사회에 대해 감당해야 할 일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IV).

⁸ 이상의 정보는 명승욱 기자의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Cf.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0&article_id=0000059855.

⁹ 이상철, "IT 학을 만들어 백년을 내다보자", <매일 경제> 2003년 11월 9일자.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9&article_id=0000326735.

¹⁰ <http://news.media.daum.net/digital/ebiz/200403/07/inews24/v6263626.html>.

I. 정보 사회의 특성들

20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진 산업 중심 사회로부터 정보 중심 사회 또는 정보 사회의 변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고도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지배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공장, 소위 정장(情場, 즉 情報場)이나 정장 단지(netplex)가 고용과 경제 기회를 창출해 내는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¹¹ 이런 정보 사회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 사회의 특징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장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점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자.

1. 기술 집약성과 지식화 추구

정보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술 집약성과 지식 추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지식 정보 기술의 발달과 집약이 아니면 정보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없고, 그 산물로 지식(information) 추구의 가속화와 지식 기술의 강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로 이미 오래 전에 다니엘 벨(Daniel Bell)이 예견한 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전략 자원인 '지식' 때문에 이 지식의 생산과 가공 및 적용에 종사하는 소위 지식 노동자들이(knowledge workers)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옳은 진단으로 나타나게 된다.

2. 거리의 소멸

거리의 소멸이라는 시사적인 책제목이 시사해 주듯이¹² 정보 사회에서는 거리의 소멸 현상이 상당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즉 일정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된다. 정보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구성원 각자가 자유롭게 상호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도 그 이전의 조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¹³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는 개인과 개인의 사회에서 형성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비공식적 조직들은 때로는 같은 대학의 실험실일수도 있고, 실험하는 이들의 네트워크 일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이익 집단일 수도 있으며, 민족적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보 기술의 발달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지구를 하나의 접근 가능한 압축된

¹¹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편, “경쟁체 하에서의 한국정보통신 기반 구조의 구축 방안과 추진 전략, III”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4년 12월), 강희원, 207에서 재인용.

¹²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The Death of Distance*,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 정보 통신 혁명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홍석기 역 (서울: 세종서적, 1999).

¹³ 존 네이스비트, 『메가 트렌드』, 이창혁 옮김 (서울: 21세기 북스, 1992), 201-27, 권용혁, 각주 14 본문에서 재인용.

공간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¹⁴ 이렇게 “전자 정보 혁명은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다.”¹⁵ 그리고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박준식 교수가 잘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건, 비공식적 조직들은 정보 기술 혁명의 시대에도 사람과 정보의 빠른 흐름을 매개하는 핵심적 연결점들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세계적 네트워크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¹⁶

3. 국제적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계성 증가¹⁷

따라서 “각 지역 혹은 각 개인이 세계 어느 지역이나 개인과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는 지역의 세계화나 개인의 세계 시민화가 나타날 것이며, 지역 내의 대면적 기초 하의 공동체가 세계 내의 이해 관계 내지는 문제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¹⁸ 그러므로 정보 사회는 국제적 의존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즉, 생태계의 보존이나 대체 에너지의 개발, 식량난의 해소 및 질병 퇴치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광범위한 교환으로 국제적 의존성이 증진하고, 이 문제들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국제 기구와 범세계적인 상호 연계성이 더 증대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4. 문화적 동조화¹⁹

그 결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 발달로 국경이 사라지면서 대중 문화는 지역적·시간적 제약 없이 파급되어 나가기 쉬워진다. 특히 영화와 오락 콘텐츠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는 나라들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방송·연예·스포츠 등 대중 문화의 세계적인 보편화 과정에서 국가적 스타의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세계적 스타의 가치는 기록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문화적 측면에서는 영어의 보편적 세계 언어화가 발생하기 쉽다.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들에게는 계속되는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제한된 정보 교환의 한계는 지속될 것이다.

5. 각자의 독자적 문화 개발 노력

¹⁴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각주 13 앞쪽의 본문.

¹⁵ Ibid., 마치는 말.

¹⁶ 박준식, “정보기술의 발전과 사회구조 변화”, <http://www.hallym.ac.kr/~jsp/data/31.html>.

¹⁷ 이 점은 특히 Everett Rogers,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edia in Society* (The Free Press, 1986), 제 1장의 내용을 강희천, “뉴미디어 시대의 기독교교육”, 『기독교 교육 정보』 창간호 (2000): 10에서 제시한 것이다.

¹⁸ Wersig, 19f.,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각주 13의 본문에서 재인용.

¹⁹ 이 점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 20세기사”(http://20c.itfind.or.kr/info0226.html)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발로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 보편화와 함께 세계 각 나라는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전통 문화가 제한적으로 독자적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중 문화가 급격히 수렴되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²⁰ 고립적으로 폐쇄적인 사회나 집단의 존립 가능성이 희박해 질 것이라고 전망하나,²¹ 일반화되는 전세계적 동일 문화 전파에 대한 **각국의 반발과 저항 운동**을 중심으로 독자적 문화 보존과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계화 운동 가운데서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와 같은 적극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았으므로 이제는 정보 사회의 부작용과 역기능으로 지적되는 특징들을 언급해 보기로 한다.

1. 정보 기술은 여러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공동체 생활을 파괴하고 자기 탐닉적 개인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 “정보 사회 이전의 사회에서의 인간 관계가 대면적이거나 직접적인 관계에서 출발했다면 정보사회에서의 인간 관계는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인간 관계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²³ 그러므로 한편으로 정보 사회에서는 세계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개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자기 중심의 활동만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대면적인 공동체적 인간 관계가 가상현실을 통해 구성되는 인간 관계로 대체될 경우 인간성 상실은 물론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가 소멸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²⁴ 특히 컴퓨터 오락이나 컴퓨터 통신, 그리고 해킹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정보의 바다에서 보내고, 그 결과 실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사회 생활에 대한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기 쉽다.

2.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정보의 불균형에 따라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정보 이용 능력의 차이에 따라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정보 기술이 사람들을 실생활 행위의 무능력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도움을 주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키고 의사 소통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게 된

²⁰ 이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 20세기사”(http://20c.itfind.or.kr/info0226.html)를 보라.

²¹ 이에 대해서는 Everett Rogers,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Media in Society*, 제 1장; 강희천, “뉴미디어 시대의 기독교 교육”, 『기독교 교육 정보』 창간호 (2000): 10을 보라.

²² 이에 대해서는 <http://www.helpnet.pe.kr/infor/infor-tec02.htm>을 보라.

²³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범” 각주 31의 본문 내용.

²⁴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이는 Jean Baudrillard이다. 그의 *Das Andere selbst: Habilitation*, Hrsg. v. P. Engelmann (Wien 1987), 10f, 14-17,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각주 32에서 재인용.

다는 것이다.

3. 사회에서 정보 통신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해킹, 자료 유출, 정보의 변조와 파괴와 같은 컴퓨터 범죄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전자 우편의 남용, 개인 정보의 유출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늘어 날 것이다. 국내에서의 이런 문제에 대해 권기정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발생한 컴퓨터 범죄는 1973년 10월에 서울 반포 AID 차관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조작, 미리 뇌물을 받고 청탁 받았던 9가구 분을 당첨시켰던 것으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그후 컴퓨터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컴퓨터의 보급이 많지 않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비교적 컴퓨터의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단말기를 조작한 데이터의 변조나 자료의 부정 입력 사고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PC 보급의 확대와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융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자료의 유출 및 해킹 사례 등 컴퓨터의 오·남용이 빈번하고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²⁵

따라서 이러한 역기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4. 컴퓨터 오락이나 통신을 통해서 성인들은 물론 청소년들조차도 쉽게 폭력물이나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음란물들을 아무런 규제 없이 가져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청소년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그 사회 구성원의 정신 위생에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5. 또 하나의 윤리적 문제로 익명성에 대한 보장과 익명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 기술을 사용할 때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지된 일을 해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웹 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또한 자신의 신분도 쉽게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컴퓨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잘못된 일이며 사회적으로도 범죄라는 생각이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²⁵ 이상의 정보는 권기정의 홈페이지 중 "정보 사회의 빛과 그림자"라는 항목 (<http://www.helpnet.pe.kr/infor/infor-tec02.htm>)에서 온 것이다.

6. 정보의 집중화로 인한 대중 조작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아주 뛰어난 이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게 정보망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II. 정보 사회에 대한 교회의 반응

1. 전적인 거부

이런 정보 사회 속에서도 (1) 한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의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2) 전통적 종교 생활 방식에 대한 고수와 또한 (3) 정보 능력 부족 등으로 정보 사회 속에서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있기를 원하는 교회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정보 통신 기술을 개인적으로 한정적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교회와 종교 활동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소극적 수용

일반적으로 정보 통신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교회는 교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교회의 여러 활동을 소개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교육하는 일 등에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교우들의 교제와 교육을 돕고, 사상을 폭 넓게 알리는 일을 하는 남부 개혁교회의 홈페이지 같은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이를 좀더 심각하게 해 나가는 교회는 사이버 교육 등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자신들의 교회가 **사이버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산 67번지에 위치한 성림 교회이다.²⁷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교회의 상호향도 위에서 언급한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교회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안명준 교수는 2000년 4월 10일자로 기독교정보탐정 (<http://www.kidok.info>)에 등록된 교회 홈페이지가 1445개라고 했다.²⁸ 그런데 4년 2개월이 지난 **2004년 6월 1일**자로는 3283곳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드림위즈에서는 3920개의 교회 홈페이지가 검색된다. 그리고 Crossmap이라는 포털 사이트(<http://www.crossmap.co.kr>)에 등록된 교회는 3501개, 야후 코리아에는 2914개, 라이코스 코리아에서는 2631개, 엠파스에는 교단과 교회 항목에 등록된

²⁶ 강채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남부 개혁교회의 홈페이지(<http://www.nbirpc.com/>).

²⁷ 성림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ungrim.org>.

²⁸ 안명준, “한국 기독교계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 『사회 과학연구』 (평택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소 학술지) 4집 (2000): 1990210, 인용은 202에서 온 것임.

홈페이지가 2039개, 네이버에는 합하여 2516개, 천리안에는 1351개 교회의 홈페이지가 검색 또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전적인 수용

이보다 더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회들이 있다. 인터넷 방송 등을 하여 기존 신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있다.²⁹ 공식적인 기독교 언론 매체 외에도, 기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TV로 울타리 TV, JCross TV, 야베스 인터넷 TV, 기독교 설교 방송 등을 들 수 있다.³⁰

더 나아가서 기존 교회와 병행하여 사이버 교회를 운영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다. (1) 미국에서는 The Cyber Church of Milwaukee는 1988년부터 사이버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³¹ 그러나 이는 주로 이 메일을 사용하는 사역이었으나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웹 상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교회이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Greg Spencer 목사는 the Waukesha Church of Christ에서 목회를 하면서³² 이 사이버 교회의 목회 일도 하고 있다. (2) 우리 나라에서도 한일 장신을 졸업한 이성남 전도사가 운영하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사이버 교회>가 있다.³³ 이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 전도사는 지상 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신도 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하면서 “사이버상의 교회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 상황에 맞게 선교적 대응 전략으로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사이버 교회를 운영하며 등록과 헌금도 받고 성찬은 1년에 한번 모이는 모임에서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3) 인터넷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예배당>에서도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분들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지길“ 바란다고 하고 있으니 독자적인 인터넷 교회를 지향하지는 않고 보충하는 매체 구실을 하기 원하는 듯하다.³⁴ (4) 이와 비슷하게 김천 감리 교회(<http://comesee.or.kr/>)와 연관이 있는 “사이버 교회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 카페가 있다.³⁵ 이는 카페에 등록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²⁹ 그 대표적인 예로 다음 교회들과 그 방송국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교회의 사랑 TV(<http://www.sarangtv.com/>); 온누리 교회의 온누리 라디오(<http://www.onnuriradio.com/>)와 인터넷 TV인 온누리 TV(<http://www.onnuritv.com/>), 그리고 위성 TV인 온누리 위성 TV(http://www.onnuritv.com/common/satellite/main_2004_0602.htm).

³⁰

<http://www.wooltari.tv/1new/home/index.htm?sid=ec8b387d0481ec5214c07f52a6d35ac3>; <http://jcross.net/>; <http://www.jabeztv.com>; <http://www.sermonstv.com/>.

³¹ 이 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http://mcadams.posc.mu.edu/ccm/home.htm>.

³² 이 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http://www.waukeshachurch.org/>

³³ <http://www.cyberchurch21.com/>

³⁴ <http://iworship.wo.ro/>

³⁵ <http://cafe.daum.net/gim1000/>.

있는 카페이다. 이 카페를 운영하는 서석만 전도사가 운영하는 세이 클럽에 개설된 비슷한 카페도 있다.³⁶ (5) 누룽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2003년 5월 1일에 시작된 다음의 한 카페도 있다. 이는 신진균 전도사가 개설한 것으로 5월 2일 날짜로 4편의 설교만 올라와 있으므로 지속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³⁷ 이외에도 (6) 몇 개의 가상 교회라는 제목의 카페가 있으나 등록자가 1-3명 정도의 작은 카페 수준의 홈페이지가 가상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있다.³⁸ 이외에도 기독교정보탐정에 10개 정도의 홈페이지 주소가 가상 예배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으나 다들 잘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한 동안 운영하다가 잘 되지 않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해 모여서 참으로 하나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제시한 하나 교회는 김영재 교수와 방동섭 교수, 강경진 교수를 자문 위원으로 하고 김병구 목사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유익희 목사, 김석홍 목사 등이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구좌를 통해 헌금도 거두고, 인터넷으로 기록된 설교를 제공하고 찬양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4년 1월 설교가 수록되어 있어서 이 공간의 사용이 활발히 계속되는 지는 불분명하다.³⁹

또는 각자 회원들이 각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사이버상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Geo Cyber Christian Community 또는 Geo Church 등으로 자신들을 부르며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⁴⁰

또한 요즘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가정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정 교회들을 위해 봉사하기 원하는 인터넷 가정 교회가 2002년 3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주로 게재된 설교는 조선대학교 정보 제어 계측 공학부의 장순석 교수의 것으로 장 교수께서 이 홈페이지의 편집인 역할을 하시는 듯하다.⁴¹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사이버 교회와 목회를 돕는 기관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감리교 선교학 연구소(Methodist Institute of Missiological Studies, 감리교 선교학 연구소 소장 장성배)가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2004년 1월에 MIMS & Associates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⁴² 그 외에 웹호스팅을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회사들이 가상 교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광고하는 예들이 종종 있다.⁴³

이 경우와도 다르게 순전히 사이버상의 예배와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³⁶ <http://club.sayclub.com/@save>.

³⁷ <http://cafe.daum.net/itsweet>.

³⁸ <http://cafe.daum.net/sujung1227> 그리고 <http://cafe.daum.net/JesusChurch>를 보라.

³⁹ <http://www.hanachurch.net/main.html> 참조.

⁴⁰ 홈페이지: <http://gc.8k.com/> 이 홈페이지는 1998년 12월 15일에 만들어 진 것으로 되어 있다.

⁴¹ http://avas.chosun.ac.kr/home_church/korean/.

⁴² <http://www.missiology.or.kr/cgi-bin/board2004.cgi>.

교회도 있다. (1)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서 “바보들의 배”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이버 교회이다.⁴⁴ 감리교회의 후원으로 5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사이버 교회는 접속자들이 아바타를 골라 웹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무릎을 꿇거나 찬송을 부르고 마우스를 이용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채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루 5000-1만명의 접속이 있기도 했다는데, 주로 호주와 미국서 접속한 이들이 사탄 같은 대화명으로 접속하여 이상한 말을 하며 돌아다니면서 사이버상 예배를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⁴⁵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스테판 곤다드는 웹 상에서 나타난 문란한 행위에 대해서 ‘실망’이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하며, 감리교 예배와 교육부서 총무인 조나단 케리는 “이번 온라인 교회 프로젝트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현실에 맞는 복음 전달을 하고 있으며, 40대 이하의 잃어버린 세대에 대한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하니,⁴⁶ 이들도 순전히 사이버 교회로 대치하기보다는 기존의 교회를 보충하는 것으로 출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2) 2004년 5월 11일(현지 시간) 영국의 성공회가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 바 ‘인터넷 교회(i-Church)’에 대한 설립을 승인하고 인터넷 본당을 관리할 목사 인터넷 전담 목사로 ‘앨슨 레슬리’라는 여성 목사를 지정했다고 한다. 영국 성공회 캔터버리 대주교의 지시로 옥스퍼드 교구 내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 전도를 담당하기 위해 세워진 앨슨 레슬리 목사는 새롭게 설립될 인터넷 교회(i-Church)에 대한 운영과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에서 모이게 될 신자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채팅방, 인터넷 방송과 이메일 서비스 등을 관리하게 된다. 이미 700명이 가입해 있고 7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게 된다고 한다. 이 일을 시작한 “성공회는 이번 인터넷 교회 설립에 대해 현대적인 방식을 따라 하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는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한다.⁴⁷

(3) 우리 나라에서도 2000년 5월에 가상 공간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⁴⁸ 이 보도에 의하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신도들이 출자해 설

⁴³ 그 대표적인 예로 <http://www.bogeum.net/q.html>을 보라.

⁴⁴ www.shipoffools.com.

⁴⁵ 이 점에 대해서는 『문화일보』 3840호 2004년 5월 22일자 해외 화제 면의 김성훈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라.

⁴⁶ 기독교뉴스(1745호, 2004. 5. 30자)에 실린 백상현 기자의 기사 참조. available at http://www.gidoknews.co.kr/news/read.cgi?board=haewe&x_number=1085815033&ryal=1&new=2%22.

⁴⁷ eRunNews.com 2004년 5월 12일자 의 황인교 기자의 보도, available at <http://erunnews.freechal.com/news/contents.asp?dcode=0101&docid=570>, accessed on 1st June, 2004. 이 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www.i-church.org/>.

⁴⁸ 중앙일보 2000년 5월 8일자의 이승령 기자의 기사(francis@joongang.co.kr) available at <http://www.dadaworlds.com/homepage/press/inner/20000508.htm>.

립한 로고스 시티(주)는 [2000년 5월] 3일 인터넷 선교관 헌당식을 갖고 가상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이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종교 관련 사이트와는 달리 “3차원 가상 공간 형태의 종교 기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되었다. “(주)다른 생각 다른 세상이 운영하는 다다월드(<http://www.dadaworlds.com>)에 세워진 이 가상 교회는 신도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찾을 수 있게 설계됐다. 현실에서와 똑같이 선교관에 들어서면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다른 신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다. 또 상담실을 찾아 신앙 상담을 하거나 각종 교회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며 로고스시티는 앞으로 가상 공간 안에 교회, 종교교육관, 종교음악관 등의 시설과 관련 쇼핑몰, 신도간의 만남의 동산 등을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했는데 다다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보면 쇼핑몰이나 사무실들과는 접촉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제작한 회사인 로고스시티는 계획해서 활동하고 있다.⁴⁹

III.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본 IT 사회 이해

위에서 우리가 살펴 본 유형의 활동과 대응들은 정보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에 근거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공동체 활동과 선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좀더 폭 넓게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정보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T 사회는 모든 사회와 같이 기독교 세계관적 검토를 통해 그 장점과 문제점이 인식될 수 있는 사회이다.

정보 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능력을 활용하여 이 세상이 만들어 가는 사회이다. 따라서 이 사회도 다른 사회와 같이 장점과 문제점을 지닌 사회이며, 또한 일반 사회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이다.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사회이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보 사회를 피하여 우리들만의 계도를 이루어 사는 현대판 아미쉬 공동체 같은 것이 시도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경 말씀에 따라 살려는 정신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것이 꼭 모든 문명의 이기, 이 경우에는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아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거부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신문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명백한 왜곡을 하여 나갈 때는 구매 금지 운동을 할 수 있고, TV들이 지나치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때는 시청 거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더 진보한 정보 매체들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무장된 입장에서 개별적, 공동체적 거부 운동이 사안 별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정보화 사회로 가는 것을 극단적으로 거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이

⁴⁹ <http://logoscity.com>.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보 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보 사회화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사명인 것과 같이 생각하고 활동해서도 안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기술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치 정보화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정보화가 되지 않은 것이 궁극적인 문제인 양해서는 안 된다. 정보화 자체가 지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은 이들도 상당히 명확히 의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보 통신 기술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려는 정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모든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정보 사회의 변혁자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와 과거 주어진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혁시키려고 노력해 왔던 진정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사회와 이 시대의 문화, 즉 정보 사회와 정보 통신 문화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혁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정보 통신 기술을 책임 있는 기술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의식과 정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활동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점을 의식한 한국 교회의 올바른 대응에 대한 제언으로 나가 보기로 하자.

IV. 한국 교회의 대응 방향 제언

1. 교회적/선교적 이용

(1) 교회 공동체를 돕는 기능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통신 기술은 교회 공동체를 간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 통신 기술이 교회 공동체를 주도하려고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소위 사이버 교회를 운영하는 곳에서도 성찬을 위해 오프라인상의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이점을 잘 반증하여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웹 상의 교육과 대화와 모임과 채팅 등은 기존의 교회 공동체의 공동체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매체와 그 기술로서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반주를 하는 악기가 성도들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듯이, 정보 통신 기술을 주로 한 사이버 교회의 운영은 교회의 본질적 모습의 왜곡을 가져온다. 사이버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고 그에 근거한 교제를 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모임이 없는 한 진정한 의미의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바타를 더 사용하여 성찬을 아바타로 하며, 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해 성찬하는 등의 시도를 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참된 성찬을 하도록 하기 위한 치리의 시행은 정보

통신 기술로 이루기란 보장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면적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익명성과 위장 가능성이 큰 웹 상으로 처리의 궁극적 실현은 있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이버 교회나 가상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은 용어이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보 통신 기술은 기존 교회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도와 교육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교회의 교제, 성도들의 교제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사용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 통신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공동체의 성도들이 상호 교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세계적 교제의 한 측면을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그 모든 이들을 한 공동체로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 나라 극치 상태에서의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과 교제를 선취하는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이버 상에 만나는 성도들의 교제를 즐기는 이들도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구체적인 지역 교회(local church)의 성도들로서 지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선교적/변증적 이용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들의 선교와 변증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술력과 관심과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들이 좋은 자료와 상당과 변증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의 땅 끝이란 현실 공간의 땅 끝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를 포함한 것이라 간주되어야 한다.”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요, 대구 남산 교회 장로인) 정충영 교수의 말은 옳다.⁵⁰ 가상 공간을 선교의 영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옳으나 그로부터 가상 교회가 가능하다고 본 것에는 무리가 있다. 가상 공간도 선교의 영역이 된다는 착상으로부터 가상 교회나 가상 예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상 공간을 사용해서 전도에 힘쓰는 것이 더 옳고 바른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개교회가 하는 것보다는 책임 있는 기독교 기관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수많은 중복적 투자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 전문가들의 바른 견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주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섬겨 가야 하기 때문이다. 개 교회가 인터넷 방송을 하며 그 교회가 가진 색깔을 현저히 드러내는 것보다는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기는 기관을 잘 운영하고 각 교회의 홈페이지가 상호 링크되어 서로가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정보 사회가 되어 갈 때 그 문제를 도움을 수 있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언급해야 한다. 일단은 교회가 그 성원들에 대해서 감

⁵⁰ 정충영, “로고스 경영 관점에서 가상 교회는 가능한가?” (2003년 8월 15일 수정) available at http://gamma.kiu.ac.kr/zBoard/view.php?id=board_jung_column&page=1&sn1=&divpage=1&category=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9, accessed on 1st June, 2004.

당해야 하는 목회적 책임을 언급한 후에 다음절에서 우리 사회 일반에 대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기여를 언급하기로 하겠다.

2. 우리 사회의 IT 사회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책임

정보 사회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목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 본질적인 일은 어느 사회 속에서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1) 성도를 온전케 하며, (2)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다(엡 4:12). 단지 그것을 정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목회적 돌봄의 독특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사회 속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되게 해야 온전케 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정신적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는 훈련

우리가 정보 사회의 역기능으로 언급한 것들을 생각할 때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정신적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여 그 모든 역기능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다.

(2)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무엇보다도 성경 곳곳에서 수 차례 언급하고 있는 “자기 절제”(self-control, 행 24:25; 갈 5:23; 딤후 3:2, 11; 딤후 2:2; 벧후 1:6 등)에 대한 강조와 훈련이 주어져야 한다. 자기 절제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하면 그 역기능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언약의 자녀들이 성령님께 의존하여 절제하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 나가야 한다. 기독교회가 이 점에서 가장 효과적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기독교 교육의 한 측면이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3) 인간 관계 발전시키기

사이버 상에서만 탐닉하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구비시키는 일을 목회에서 배려해야 한다. 성인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모두가 그 연령층에 맞는 인간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과 소외 극복을 위한 활동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과 소외를 극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좋은 교사들과 함께 구비된 정보화

시설이 교회 인근에 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준비된 인력의 봉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세계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활동 능력 개발

교회의 지체들이 세계화를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인답게 교제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세계의 주도적인 문화를 이해하되 그에 동화되어 가지 않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야 한다.

(6) 우리가 기여 할 수 있는 독특성 개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계 교회와 세계 전체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독특성을 잘 계발하고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적 상황을 돌아 볼 때 다원적 문화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독교에 충실하며 그것을 이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대에 세계 교회와 전 세계에 한국 교회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될 것이다.

이상의 것들이 정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지체들을 준비시키고 구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이 정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기여라고 간주되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신적으로 훈련되어 있으며 절제하며 정보 통신 매체를 사용하는 진정한 성숙한 네티즌이 많도록 교회가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잘 훈련된 적절한 사이버 시민 제공하는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네티즌으로 정보 통신망 안에서 활동한다면 우리 정보 사회가 그 역기능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 외에 교회는 또 이 정보 사회 속에서는 이 사회에 대해서는 어떤 간접적 기여를 할 수 있을까?

3. 사회 문화적 간접적 기여

(1) 적절한 정보 통신 윤리 개발에 대한 기여

교회의 정보 사회에 대한 간접 기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정보 통신 윤리를 개발하는 데 일조(一助)하는 것이다. 정보 사회 안에서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적절한 정보 통신 윤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⁵¹ 컴퓨터 윤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논의의 발전 과정을 박정순 교수는

⁵¹ 이에 대한 좋은 시도로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1997)를 보라. 박용삼, “정보화시대의 사이버윤리 확립을 위한 제언: 경제학적 시각” 정보화 정책(구정보화 저널) 1999년 6권 1호, [http://www.nca.or.kr/homepage/main/data/journal.nsf/0/7ced445057f116fc925690e0012f8fe?](http://www.nca.or.kr/homepage/main/data/journal.nsf/0/7ced445057f116fc925690e0012f8fe?OpenDocument) accessed on 1st June, 2004.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1998) available at <http://home.ulsan.ac.kr/~philos/c75-kwon03.html> accessed on 1st June, 2004.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⁵²

컴퓨터 윤리학의 태동은 1970년대 중반에 월터 매너(Walter Maner)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한다. 그는 “컴퓨터 윤리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는데, 그것은 철학적 윤리학설을 컴퓨터 기술에 의해서 창조되고, 변형되고, 더욱 심화된 윤리적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했다.⁵³ 그는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컴퓨터 윤리학을 대학교과과정에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이어서 데보라 존슨(Deborah Johnson) 등 많은 학자들이 컴퓨터 윤리학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 데보라 존슨은 컴퓨터 윤리학이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은 아니라 기존의 윤리학설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거나 혹은 재해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특히 직업 윤리로서의 가능성을 보다 중시했다.⁵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일종의 사회화와 윤리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교 철학과의 권용혁 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가상 공동체는 구성원들간의 상호 작용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회칙, 통신 예절(네티켓)과 같은 공식적, 비공식적 규범을 형성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화를 수행해왔으며 구성원들은 있을 수 있는 위반에 대비하여 서로의 행동을 감독하며, 일단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등급화된 제재 체계를 고안해왔다. 이들은 아직은 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가상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규범과 제재 체계가 가상 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순응과 합의적 해석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발적인 순응과 합의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상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정보매체의 기술적 구조에서가 아니라, 참여자들의 공동의지와 그것의 기술적이며 조직적인 실행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⁵⁵

⁵²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1997), 각주 18-19의 본문.

⁵³ Simon Rogers, “The Ethics of Computing: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URL = <http://idun.unl.ac.uk:80/~11sadlerc/src/ETHrog.html>(1996).

⁵⁴ Deborah G. Johnson, *Computer Ethics* (Englewood Cliffs: Prantice-Hall, 1985). 박정순에 의하며 G. Walsham, “Ethical Theory, Codes of Ethics and IS Practice,” *Information Systems Journal*, vol.6 (1996): 69-81도 “윤리학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것이 학문적 탐구 작업에 있어서 누적적 전통(a cumulative tradition)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며, 컴퓨터에 기반한 정보 체계에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주류적 윤리학설과의 명백한 연계성을 가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런 논의의 배후에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대한 상당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권용혁 교수의 해결 방향에 대한 논의는 매우 낙관적이다:

일시적으로는 정보의 폭증과 과잉 정보로 인해서 정보 판단자의 판단 능력이 무력화되고 사유와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과 정체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사회의 인간들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객관적 판단 능력의 증대를 가져올 것이며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합의와 수평적 협력의 확대를 보장할 것이다.⁵⁶

박정순 교수도 비슷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아마도 정보통신사회에서는 사생활 보호,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정보권의 보장, 정보분배 문제의 해결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숨겨진 채로 혹은 알려진다고 해도 비교적 공정하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롤즈(Rawls)의 무지의 장막 아래의 원초적 입장과 같은 면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유주의적인 사회계약론적 정의론이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들간의 갈등과 그 해소 원칙으로서, 그리고 정보복지의 증진과 공익을 위한 제약의 관점으로서 공리주의 원칙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사회에서의 자기충족성, 자기발전성 혹은 자주성(do it yourself or can-do spirit)의 윤리를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윤리적 심미적 완전주의가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들간의 자발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체적 참여를 위해서 어떤 행태의 (아마도 자유주의의 한 변형으로서) 공동체주의가 필요할 것이다.⁵⁷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입장을 굳이 강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러한 상이한 규범 체계들은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상충 가능하며,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영역과 주제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상황주의적 다원주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⁵⁸ 그러므로 지금까지 정보 통신 윤리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의되거나, 아니면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적 입장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⁵⁵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각주 36과 관련된 본문.

⁵⁶ Ibid., 각주 45 위의 본문.

⁵⁷ 박정순, “정보통신 문화와 도덕의 정체성 문제”(1997), 각주 31의 본문.

⁵⁸ Ibid. 각주 31 밑의 논의.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자율성과 그 자율적 능력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 사회에서의 윤리가 과연 수립되고 특히 실천 될 수 있을 지의 문제는 일반 사회 속에서의 윤리의 성립 가능성 논의보다도 더 어렵다고 여겨질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와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적 관점에서 정리가 이루어 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저 질서 유지를 위한 방편이지 과연 윤리인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더구나 그것을 실천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에서는 모든 이들이 더 큰 난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큰 난제 앞에서 정보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독교회는 가장 바람직한 정보 통신 윤리를 제시하는 일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2) 기독교 네티즌의 성숙한 활동에 따른 간접적 영향

그리스도인인 네티즌들이 성숙한 네티즌으로 활동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사이버 사회를 정화시키고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비어와 속어를 섞어서 말하고 하는 등의 상황이 많은 가운데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되 예의와 사회적 질서를 지키면서 주장하는 바른 네티즌들이 사이버 세계 속에 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유익이 많은 것이다.

(3)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이웃을 위한 도움 제공

이점에 교회의 큰 사역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정보 사회 속에서는 정보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정보 획득의 기회를 열어 주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정부와 민간 차원의 시설들과 협조하여 노력해 가는 일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V. 마치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소위 정보 사회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교회가 과연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결국 정보 사회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보를 인식하고 다루는 사람들이다. 이는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적인 학자들도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논의에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Howard Rheingold는 이렇게 말한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매개된 의사 소통을 하는 방법은 언제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그 뿌리를 둔 것이다."⁵⁹ 따라서 정보 사회에서도 교회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정보 사회가 기술적으로 가져다 준 정보 바다 가운데서 적절한 정보를 잘 선별하고

⁵⁹ Howard Rheingold, "A Slice of Life in My Virtual Community," in Linda M. Harasim, (ed.), *Global Networks: Computers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93), 58, 권용혁, "정보화 시대의 삶과 규범", 각주 29의 본문에서 재인용.

제대로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고 그 기술을 책임 있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가운데서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측면의 교육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소멸하고 그 사회들도 소멸하는 것에 기여한 것과 같이, 이 새로운 정보 사회 속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소멸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 되어 감과 궁극적 소멸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느 사회나 항상 그 사회가 가장 잘 발달시킨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멸해 간 과거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여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